

죽음의 공포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한다. 나도 그런 공포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죽음 뒤의 삶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는 확고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결론은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영향은 상당한 위안과 안심을 가져다 준다. 즉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어떤 의미로는 최종적인 이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자신의 죽음은 어떤가? 내 차례가 되었을 때, 테이트 드 사르망이 했던 것처럼 말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죽음은 단지 상태가 변하고 바뀌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진리를 보여주는 종교는 어느 것인가?

10

나는 조셉 맥키 목사님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는 내가 소년이었을 당시 필라델피아 장로파 교회의 목사이셨다. 그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온갖 공식 신임장을 수여 받았으며, 우람한 체격과 잘 생긴 용모 그리고 이치형 천장에 매달려 있는 우아한 상들리에를 흔들리게 할 정도의 우렁찬 목소리로 교구민들을 장악했다. 매 설교마다 그는 나를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다. 맥키 목사는 교구민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호통을 쳤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남에게 납득시켰으며 거기에는 추호의 의혹도 있을 수 없었다.

“주를 두려워 하십시오.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설교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맥키 목사 뒤편의 발코니에서는 세 명의 알토와 소프라노 여인들이 죄를 비난하고 미덕을 칭송하는 찬송을 감자기 노래하곤 했었다. 이런 것들로 인해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은 난쟁이로 위축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설교가 끝나면 비틀거리며 교회를 걸어나와 과연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곤 했었다. 한 번은 집에 가는 길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 그대로 이렇게 외치게 되었고 싶었던 기억이 난다.

“세상을 멈춰주세요! 나는 내리고 싶어요!”

나중에 웨이커크교 학교에서는 사정이 약간 나아졌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종교란 자신이 스스로 일어서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혼란이 뒤따랐고, 아직까지도 과연 내가 그 과정들을 다 완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비교란 불쾌하기 마련이지만 나는 도저히 종교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비교를 하는 이유는 영적 인식체(종교)에서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부러움은 자신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과 다른 안식처를 찾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심판의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이상에 따라 살려고 하는 건강한 기독교인은 크게 존경받을 만하다. 그리고 나는 각자의 종교적 전통에 따라 살아가는 유태교 혹은 불교 혹은 회교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사실 세상의 위대한 종교들이 외치는 진리는 동일하다.

카트만두에서 에베레스트 산기슭까지 가는 40일 간의 고된 여행 중에, 나는 짐꾼들의 심원한 불교 신앙을 가까이서 관찰할 기회를 얻었다. 세계의 지붕이라는 에베레스트 산의 외판 마을, 문명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곳에서, 그들은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런 경험과 시각으로 무장된 내가 에드가 케이지를 연구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은 점은 그의 리딩이 모든 신앙은 하나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그는 만물이 하나라는 -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면에서 - 것을 굳게 확신했기 때문에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세 상에서는 모든 종교들이 동일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했다.

만물에는 각자의 자리가 있다

비록 에드가 케이지가 유대-기독교 전통 쪽으로 기울기는 했지만, 그는 세상의 모든 종교에 대해서 똑같이 경건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편지를 보낸 어떤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분명하게 대답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도 자비롭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리딩 254-87)

이런 설명은 단지 자기 나름대로 살고 남에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넘어선 것이다. 리딩은 식물을 비유로 들어 단 하나의 대답(종교)이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오크 나무도 있고, 블루레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무들은 서로 다른 용도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당신은 삶의 필요에 따라 그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은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단지 당신이 얼마나 좋은 오크나무, 혹은 블루레나무, 혹은 소나무인지만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달리 말하자면, 당신이 할 일은 다른 사람이 걷는 영적 진로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진보에 진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료 인간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자신의 진보를 보여줌으로써 타인을 위한 영적 귀감이 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케이지에 따르면,

진리가 어디에 감춰져 있든 또 그것의 이름이 무엇이건 간에 진리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유익하다고 한다.

어디에서 건 하나의 진리를 찾게 되면 우리는 유일한 신이 모든 창조물을 우산처럼 덮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동료와 자신에 대해 기치 있는 것들을 배우기도 한다. 그러므로 케이지가 의뢰인들에게 종교사에 흥미를 남긴 그런 편견을 버리라고 경고한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당신 내부에 있는 신의 팔에 기대십시오. 복수나 낙담에 마음의 자리를 내주지 마십시오. 편견을 만드는 그런 감정을 표출하지 마십시오.”

이 충고의 이론적 기반이 리딩 3179-1에 설명되어 있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신에 대한 가장 위대한 봉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곧 창조주를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케이지가 여러 리딩에서 거듭 말했듯이, 각 영혼 그리고 모든 영혼은 신의 창조물이자 신의 공동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신을 대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더 확장해서, 케이지는 종교간의 틈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은 무의미하며 해롭기까지 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같은 리딩에서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종교주의가 무의미함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케이지의 리딩에서 반복되는 주제이다. 즉 인생의 의문에

대한 수많은 대답들의 핵심이다.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를 우주의 창조력으로부터도 분리시킨다. 리딩 3976-27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는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파벌이나 이교도, 특정 주의, 특정 의식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편견과 분리라는 이 추제가 케이지의 마음을 몹시 괴롭혔던 것이 틀림없다. 그는 편견과 분리가 영적 진보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도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앞의 리딩은 이렇게 계속되었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종교적·인종적 차이가 더 많은 전쟁과 유혈사태를 초래해 왔습니다. 이것들은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이 약속한 평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은 인간의 종파나 분파에 상관없이 ‘신을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이’ 를 사랑한다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매우 주목할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신은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이를 사랑한다’ 가 아니라 ‘신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이를 사랑한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은 독실한 신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이해한 바로는, 우리는 항상 모든 종교가 창조주의 사랑과 만물이 하나라는 깨달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영적 충동에 따라 서로를 사랑해야만 한다. 서로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영적 충동의 표현에서 벗어난 방식인 것이다.

모든 종교는 동일한 원천에서 비롯되었다

에드가 케이시의 범종교적인 시각은 기독교의 다양한 분파를 초월하여 뻗어 나갔으며 서구 사회의 다른 종교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유대-기독교 문화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극동의 신앙까지도 함께 아우를 수 있었다.

케이시가 이런 종교적 융합을 강조했던 이유가 리딩443-3에 포함되어 있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한 최상의 가르침은 기독교입니까 혹은 동양의 종교입니까?’ 라고 묻자, 케이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기독교든 동양의 종교든 그것들은 모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근원과 힘은 동일한 원천에서 비롯되었으며 다시 그 원천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질문자가 종교적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진정한 이상이 무엇인지 묻자, 케이시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질문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자기 내부의 영혼이 진정한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궁극적인 영성의 척도는 ‘개인적 이상’이다. 이상을 설정하고 그에 준해서 당신의 행동과 믿음을 제어하라. 그러면 당신은 진리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상이한 문화 간에 서로 통하는 점이 있다는 것은 놀랍다기보다는 매혹적이다. 동양의 진정한 영적 스승들은 그들 종교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가르침도 존중한다. 앞으로 언급하겠지만, 그런 존중은 동일한 근본에서 비롯된다. 즉 믿음과 실천이 내적 자아의 진정한 표현이라면 바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다.

아마 케이시는 몰랐겠지만, 배어드 T. 스팔딩이라는 서구 과학자가 동료학자들을 이끌고 인도로 여행했었다. 그 여행 결과가 ‘히말라야 스승들의 삶과 가르침’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다(초인생활 정신세계사 펴냄). 이 탁월한 저서는 동서양 성인들 간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케이시의 생각을 반영하듯이 말이다. 스팔딩은 네 번째 장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인도에 가서 스승의 발치에 앉는다고 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심오한 본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배운 것을 따름으로써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모든 고귀한 동기와 인간의 내적 본성을 자극하는 진정한 충동의 배후에는 언제나 우주의 힘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스승들은 항상 당신이 자아에 충실해야만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아에 충실한 삶을 사십시오. 당

신 자신의 내부에서 갈망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될 때까지 본래부터 타고난 본성에 충실하십시오.”

여기 몇 개의 간략한 문장을 속에 동양 철학에 대한 개론과 케이지 가르침의 핵심적 요약이 나타나 있다. 명상과 기도를 통해 자신의 이상 속에서 표현되는 진실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분명히 최상의 창조적 원리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케이지의 가르침과 허말리아 스승들의 가르침간에 서로 일치하는 핵심은, 한 스승이 스팔딩에게 했던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너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고 그리스도가 말했다. 때, 그리스도는 만물의 유일하고 진정한 단일성을 말하고 있었다. 개인과 전체와의 관계에서의 완전성을 말했던 것이다.”

스팔딩은 누구든 스승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만일 그가 제도와 종교와 인종과 국가의 굴레를 떨쳐버린다면, 그리고 우주적 힘에 귀의한다면, 전체와 하나되는 삶을 살게 된다.”

동방의 스승들의 가르침과 케이지 리딩의 가르침은 놀랍도록 유사하다. 스팔딩은 다음과 같이 썼다.

“모든 분리는 순전히 개인적 억측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실제로는 전체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전체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그것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의식을 통합하는 위대한 힘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사랑으로 확장되면 그는 조만간 모든 사람을 향해 사랑을 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이런 사랑 속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신과 하나됨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다

케이지의 범 종교정신은 모든 종교만이 아니라 과학까지도 끌어들여 있고 있는데, 나는 본래부터 과학 쪽으로 기울는 편이었기 때문에 케이지의 가르침과 현대 과학의 지식이 일치하는 점을 주목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다.

과학이 종교를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과 종교 양자 모두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관이 있다.

프리츠프 카프라는 『물리학의 도』란 그의 책에서, 이 점에 대해 예리하게 관찰했다. 카프라는 먼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즉 고체라는 개념은 원자 물리학에 의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보다 작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무너져 버렸다. 그러나 카프라가 현대 물리학의 최고봉이라고 주장하는 양자 이론은 우리를 다시 순환 계도에 올려놓는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양자 이론은 우주가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밝혀준다. 그

이론은 이 세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작은 단위로 해체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질을 계속 분해해 보면 자연에는 건축을 위한 어떤 독립된 '기본 벵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히려 전체의 다양한 부분들이 연관된 복잡한 파동이 나타난다.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고서는 결코 동시에 자연을 말할 수 없다."

분명 이것은 케이시의 우주론과 일치하는 과학적 이론이다. 비록 카프라가 '우리 내부의 신'과 같은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연을 설명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의 단일성을 보여준다는 의미라고 말한다. 더구나 그는 우리가 물리학의 '물질'의 영역에서 신비주의의 '의식'의 영역으로 옮겨갈 때 '일상에서 보여지는 피상적인 기계론적 외양 배후에 있는 다른 실재'를 발견한다고 말한다.

카프라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생각을 요약했다.

"과학에는 신비주의가 필요치 않고, 또 신비주의에는 과학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둘 다 필요합니다."

아마도 케이시는 카프라의 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주장했을 것이다 '인간은 그들 자체다'라고.



저자가 리딩에서 받은 영향